

HB솔루션, 사상 최대 실적...매출액 1,876억 원, 영업이익 271억 원 기록

- ▶ 전년 대비 매출액 301%, 영업이익 3,962% 증가
- ▶ ELB(Edge Light Blocking)장비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2023-02-10> 디스플레이 종합 장비 업체 HB 솔루션(297890, 대표이사 이재원)이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를 통해 10일 밝혔다. 매출액은 1,876억 원, 영업이익 27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각 301%, 3,962% 증가한 수치다.

HB솔루션 관계자는 "고객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LTPO OLED패널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카메라렌즈 주변 빛샘 방지 ELB (Edge Light Blocking) 장비 수주 또한 크게 증가했다"며 "해당 장비 납품이 베트남 공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2년 환율 급등의 수혜 또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HB솔루션은 ▲전공정 팹 검·계측장비 ▲후공정 모듈 도포장비 ▲잉크젯장비 ▲반도체 MEIS장비 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2년의 호실적은 후공정 도포장비인 ELB(Edge Light Blocking)장비의 납품 증가에 따른 것이다.

HB솔루션 이재원 대표이사는 "OLED가 적용된 하이엔드 모바일 제품 확대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장비의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디스플레이 전/후 공정 장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잉크젯기술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어플리케이션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신규 사업 영역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HB솔루션은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SDV)과 522억 원 규모의 ELB장비 수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보다 앞선 22년 11월에는 미국 카티바(Kateeva)와 협력을 통해 잉크젯 프린팅 장비의 개발 및 납품에 성공한 바 있다.